

哲學、道德、宗教의 質疑

W · Y · C

내가 「벨 유손」(Belloc)을 알게 된 것은 最近의 일이고 그의 作品의 和譯에 依한 것이다。 이러한 關係로 彼에 對한 나의 知識의 淺薄함을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나의 所知 그대 多를 發表함도 無妨할 듯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現代哲學에 直觀의 立場을 取하는 사람은 「벨 유손」(一八五九)이라 할 것이다。 彼는 「스피노자」의 直觀的 認識을 吸收하여 自己의 哲學體係를 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彼の 哲學의 骨子만을 要記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外的 物을 認識하는 데는 二個의 法則이 있다 는 것을 彼는 力說하였다。 即其一은 우리가 外的 物을 認識하자면 그 物體의 周邊에서 一個의 視點을 定하고 다음은 符號를 定할 것이다。 符號를 定한다는 것은 概念을 定하는 것이다。 其二는 物自體內部에 進入하여 그 物自體를 全體적으로 直觀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物自體內에 우리가 들어가서 物自體와 同化하여 全體를 直觀함이 得이다。 그러면 前者는 分析을 意味하는 것으로 自然科學의 認識을 말하는 것이고 後者는 絕對的 認識을 말하는 것이다。 彼가 이처럼 二個法則을 세워 넘어 理知를 主로 하였음으로써 神秘主義者란 名稱을 받음이 過評은 아닐 듯하다。 그러나 이것을 考察할 때 勿論하고 「我」(moi)란 것은 二個法則에 依하여서만 비로소 認識한다는 데는 우리의 注意를

喚起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我」의 認識으로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我」란 무엇이냐? 를 究明하여야 할 것이다。 「我」란 것은 第一法則과 같은 分析의 概念에 依하여서만은 到底히 把握할 수 없는 것이다。 그 理由는 「我」는 다물 物質이 아니고 「生命」인 까닭이다。 여기에서 「生命」을 把握하자면 彼の 第二法則 即 直觀的 認識을 갖어야 할 것이다。 「生命」이란 絕對的이고 同時に 流動하면서 있는 것이다。 過去를 經驗하고 未來를 胎하여 갖고 間斷없이 續이고 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벨 유손」은 「續으면서 있는 것」(Dureeui Scroule)이라 하였겠다。

우리가 外部로부터 이 生命을 考察할 때에는 停止狀態로 보이는 것이나 內部에서 直觀적으로 이 「生命」을 考察할 때에는 「生命」은 異質的이며 連續的이며 緊張의 인 것이다。 緊張이란 兩極端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緊張의 度에 따라 飛躍의 狀態에 있는 것도 있고 中正反對로 緩緩의 狀態에 있는 것이다。 飛躍이라 하는 것은 連續狀態로 繼續하여 가다가 엇더한 時期, 엇더한 場所에서 突變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彼가 進化論의 突然變化를 輸入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飛躍의 純粹한 것이 彼가 말하는 「永遠의 生命」(Eternite de vie)이다。 이런 點으로 보와 우리는 彼를 神秘主義者라 불리도 無妨할 것이다。

「物質」이 있음으로써 「生命」이 있는 것이 아니라 「生命」으로부터 「物質」이 産出된 것이라고 彼는 力說한다。 우리가 一個 物을 考察할 때 「生命」의 認識으로부터 出發한다면 全體의 物을 把握하기가 容易할 것이다。 假令 우리가 우리 눈(眼)을 考察함에 있어서 이 눈을 外部적으로 觀察한다면 눈의 構造라든지 또는 눈의 作用等々이 如干 複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內部로부터서는 눈의 全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即「은」 「生命의 意慾」의 하나 이란 것이 容易하게 알 수 될 것이다。 또는 「홀」은 「물」을 外部적으로 볼 때면 理解하기 困難할 것이다。 물(水)의 性質이라든가 물의 作用이라든가 또는 물이 흘러 가는 地面의 傾斜의 度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關係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內部的으로 본다면 물은 「홀」은 「다」는 「生命의 意慾」 하나 뿐인 것이 손쉽게 理解될 것이다。 이렇게 「生命의 意慾」이란 內在的 本質으로서 考察한

다만 何等의複雜性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人間에關係가 極히 적은 것이 緊張의度가 極端으로緩緩된狀態 即停止狀態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벨옥손」은 「生命의意慾」으로써 世界를解釋하였다。 다시 말하면 宇宙의森羅萬像은 「生命의意慾」의原動力에依하여 連續되고 或은 停止되곤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彼の哲學의要所만은 말하였스비라고 나는 믿고 다음은 彼の道德과宗教에 言及하려 한다。

最近에와서 彼は「道德과宗教에對한二個의源泉」이란 作品을發表하였다。 여기에서서도 原文을直接參考치 못하고 務台先生의講義를 材料로 하는바 甚지 안은 遺憾을 갖고 있다。

우리가 道德을말하기전에 우리의生活에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大概 生活에는 二個樣式이 있는 것이다。 其一是 本能을造作하여 그本能으로써 生活의中心을삼는 것이니 昆蟲類의生活같은 것이 그의例이다。 其二是 理知란것을發見하여 그것으로 生活樣式의中心을삼는 것이니 人類의生活이 그의例이다。 人類의生活에도 開明의社會生活과 未開의社會生活의 二種生活을볼수 있다。 이二種生活이 道德上에나 二個源泉인데 人類幸福의增進을爲한道德이 開明道德Morale Overté이고 그反對로 엇더한國民에만 局限된道德을 未開道德Morale Cécé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宗教는 엇떻게考察하였는가? 勿論 彼は 宗教에서도 二層으로區分하여 說明하였다。 即 엇더한사람을 勿論하고 信奉할수 있는宗教, 例하면 佛敎, 基督敎와如한宗教는 開明宗教라하고 一部國民이나 種族에만局限된宗教는 未開宗教라 하는 것이다。

나는 될수 있는대로率直하게 彼の見解를究明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彼の見解를 全然批判的態度로서 反省할수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의反省에서는 다음과같은 幾種의疑辭를 갖기 고 이나。

첫째 「生命의意慾」이란 曖昧한前提가안인가한다。 前에例를流水를들었는데 流水는 「生命의意慾」으로써 勿論 그처럼흐르는 것이라면 停止할물의 內的存在는 무엇일까? 勿論 「生命의意慾」으로써 停止하지안

으면 아니 될 것이다。 어떻게 흐르는 것도 「生命의意慾」, 停止한 것도 「生命의意慾」이라면 一種의물(水)에多數의 「生命의意慾」이 潛在하고 있는 것이事實이다。 그리고 보면 一個體에多樣의 「生命의意慾」이作用할뿐 아니라 物々頭々에따라 無數의「生命의意慾」이 存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肯定하여둔다면 哲學上에서말하는 多元論에不過할 것이다。 即 原子論에서 보는原子들을 「生命의意慾」이란 抽象的名辭로 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그렇지만 안이라고 「生命의意慾」은 統一性을 갖는 것으로 作用만이 形々色々이라면 哲學에서 陣腐하게 말하는 심이라든가 精神이라든가 神이라든가 絕對我라든가 하는等을 改名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에서 彼の「生命의意慾」이란 것이 나의疑辭를 갖다 주는 것이다。 또는 彼の「認識法則」에 있어서 「周邊에서 視點을定하다」는 것이 尙異常하게 생각된다。 우리가 一個物을觀察할豫定으로 一視點을定한다구 하면 無數한視點을發見할수 있을 것이다。 이數點은視點에 따라 그物體의認識이달나질 것이다。 假令冊床을認識하기爲하여 視點을定한다면 前方에定할수도 있는 것이고 後方에定할수도 있을 터이다。 그렇다면 이視點의位置에 따라 冊床에對한 우리의認識이달나질 것이다。 이처럼 달나진다면 엇더한認識이安當하겠는냐는 것이問題이다。 이問題에解答을하기爲하여 彼は 第二法則 即直觀的認識을提起한 듯하나 여기에도 우리는滿足을 얻지 못하는 바이다。 直觀적으로 「生命의意慾」을 본 것과 같히 直觀적으로 「絕對我」를 볼수도 있고 直觀적으로 心을 볼수도 없지 않을 터이다。

마지막으로 彼は 道德이나宗教이나 二個源泉을 말하였는바 그러한道德, 그러한宗教가 있다는 것만은 肯定된다。 그러나 二個源泉即兩極에附屬되지 못한道德, 宗教는 어디로從屬시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開, 未開의限界線을明示할수가 到底히不可能한 것이라구 나는 믿는 바이다。 나는 上述과如한 疑辭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充分한材料를 얻지 못한 것에 基因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벨옥손」의 哲學領域內에 完全한案內를 받지 못한關係인가한다。 現今의 나로서는 이것으로꾸이나 다음 充分한參考材料를 얻게 되면 機會있는대로 尙남은研究를내놓을가한다。 諸賢의광은 鞭撻를바래는 바이다。